

TownNews

타운뉴스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한 주간 지속되는 광고효과
각종 전문 컬럼 게재 등으로 풍부한 읽을 거리 제공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배제한 밝고 건강한 신문

714-530-1367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회사,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크레딧!!
개인 크레딧 & 비즈니스 크레딧 상향조정, 용자 저희가 도와 드립니다

개인 크레딧	크레딧교정, 크레딧카드 및 탕감 및 이자율 조정 상담
크레딧 빌드업	주택 렌트비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 및 다양한 솔루션 제공으로 신용 점수 급상승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용자 상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대의 크레딧라인 조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불량자 신용거래 즉시가능
비즈니스 크레딧	비즈니스 크레딧 생성 및 빌드업에 관한 토털 컨설팅
비즈니스 용자	비즈니스 및 개인 신용 상태에 따른 맞춤형 용자 프로그램

유컨설팅은 공인 세무, 법무 법인이며, 6개의 지사 중 OC와 LA 오피스가 한인 담당입니다

예약상담 **714-989-1231** | 예약필수 **213-973-1183**

14730 Beach Blvd, #233, Buena Park, CA 90638 | 3600 Wilshire Blvd, LA, CA 90010

CONSULTING GROUP
Credit Improvement Solution



갈말 웃음

[교카소 그림]

잘난 척하길 좋아하는 사모님이 미술관에 갔다.
한 그림 앞에서 안내인에게 말했다.
“이건 마네 그림이지요?”

안내인이 대답했다.
“사모님, 이건 모네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 앞에서 사모님이 말했다.
“이건 르누아르 그림이지요?”
안내인이 대답했다.
“사모님, 이건 고흐 그림입니다.”

사모님이 다른 그림 앞으로 이동해 다시 물었다.
“이 괴상한 초상화는 분명 피카소 그림이지요?”
안내인이 난처한 듯 대답했다.
“사모님……, 그건 거울인데요…!”

[탈출]

한 정신병원에서 갑갑함을 참지 못한 두 명의 환자가 탈출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협동해 침대 시트를 찢은 뒤 그 조각들을 묶어 탈출용 밧줄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되자 먼저 한 명이 밧줄을 창 밖으로 던지고 내려갔다.

잠시 뒤 다른 한 명이 따라 내려가려는데 먼저 내려갔던 환자가 불쑥 올라와서는 말했다.
“안 되겠어. 너무 짧아.”

두 사람은 옆방 시트도 몰래 가져오고 환자복도 벗어 아까보다 훨씬 긴 밧줄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아까 먼

저 내려갔던 환자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환자가 다시 올라오더니 말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엔 너무 길어.”

[어차피 마찬가지로]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 생활은 뒤죽박죽이 됐다. 밤마다 아이가 보채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나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요! 어째서 애가 우는지 가봐요!”

잠을 설치는 날이 그렇게 계속된 어느 날,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딱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유아 마사지에 관한 책을 권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난 그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는 조용히 잠을 잤다. 그런데 한밤중 아내가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닌가.

“여보, 일어나요! 애가 울지를 않으니 어떤 일인지 가봐요!”

[노인'정'에서]

김 할머니는 팔순이 넘어서 귀가 어둡다. 하루는 김 할머니가 노인정에 갔는데, 제일 싫어하는 약국집 송 할머니도 왔다. 송 할머니는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구!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츠 세단’ 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러.”

하지만 귀가 어두운 김 할머니.
“어휴~!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걸루 맨날 자랑질

이어…인자는 허다허다 안되니께 ‘배추 세단’ 산 것 가지고 자랑질하구 자빠졌어.”

요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때, 옆에서 묵묵히 장기를 두던 노인정의 최고 어른인 왕 할아버지가 시끄러웠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시끄러! 이 할마시들이 아까부터 왜 자꾸 ‘싼스 세장’ 갖구 난리들이여. 그냥 적당히 입어!”

[택시 운전사와 할머니]

한 택시기사가 주박가를 운전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튀어나와 급정거를 했다. 다행히 사고를 피한 운전사가 화가 나서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할머니, 저는 10년 무사고 운전자예요. 누구 신세 망칠 일 있습니까! 조심히 좀 다니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운전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씩씩거리며 말했다. “뭐라고? 야, 이 문디 자숙아! 나는 80년 무사고 보행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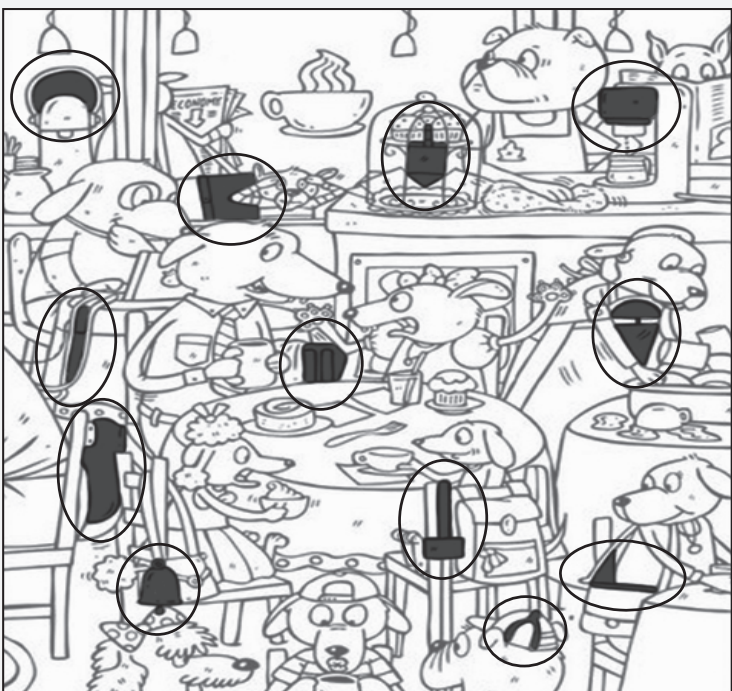
[파리채와 효자손]

아들이 매일 속을 썩이자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

아들이 울면서 아빠에게 항의했다.
“내가 파리야? 왜 파리채로 때려?”

기가 막힌 아빠가 아들에게 말했다.
“야이놈아~! 그럼 효자손으로 때리면 효자 될래?”

숨은그림찾기 정답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